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환영(Illusion)의 조형미 연구

송혜옥* · 금기숙

홍익대학교 의류학과* · 홍익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시각(視覺)은 실제와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을 일으켜 착시(錯視)현상을 유발하게 한다. 대부분의 조형 예술은 착시를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시각 예술에 다양하게 적용되며 특히, 인체(人體)를 도구로 한 조형 예술인 패션은 미적 욕구를 위한 인체의 시각적 변형(變形)을 통하여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시각 예술을 창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1차적인 시지각적 특성에서 나아가 풍부한 감정 표현을 위해 시각적 환영(Illusion)을 사용함으로써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져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한층 발전된 패션디자인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일루전의 조형적 특성을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의 요소인 선과 형, 형태를 통해 보이는 일루전은 변형(變形)과 왜곡(歪曲)을 통해 나타난다. 이상적인 인체의 미를 추구하는 욕구는 실루엣의 확대 및 과장, 축소, 왜곡 등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형태적인 측면에서의 일루전으로 인체의 실루엣 자체를 직접 변형시켜 시지각적으로 더욱 강조되도록 물리적인 요소를 직접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둘째, 인체를 감싸고 있는 의상의 소재 자체를 중복(重複)시키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反復)시켜 입체감과 특수한 효과를 연출하는 일루전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소재의 중복과 반복은 우리의 시각을 풍부하게하며 또한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준다. 셋째, 색의 혼합(混色)과 대비(對比)는 평면적인 측면에서의 일루전에 의한 시각적 원리에 근거하여 매우 단순하고 규칙적이며 강한 형태와 색채를 갖는다. 이러한 색의 혼합과 대비는 2차원적인 평면에서 형태와 색상만으로 시지각적 착란을 일으켜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하므로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 주제로 이용된다. 넷째, 인체와 의상은 공간 안에 있으며 빛의 존재를 관찰자가 지각함으로써 여러 각도에서 그 대상을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만든다. 움직이는 빛의 형태 및 빛의 공간의 영향을 통해 나타나는 일루전으로서 빛에 의한 방사와 잔상은 의상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 다섯째, 공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의상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공간 안에서의 인체의 노출과 은폐는 시지각적 효과 뿐 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큰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구분을 기준으로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일루전을 분석한 결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루전은 시각을 집중시켜 무의식 상태에서 사고(思考)를 전환(倏換)하게 하여 공간적 환상미를 갖게 한다. 둘째, 오브제의 다양한 도입과 제시는 모든 사물이 동격(同格)으로 조형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구조적 과격미를 느끼게 한다. 셋째, 인체 위에 보이는 일루전은 다양한 점, 선, 면의 사용과 실루엣의 변형을 통해 점진적 울동미를 느끼게 한다. 넷째, 일루전은 2차원의 평면(平面)을 3차원의 입체(立體)로 바꾸며, 빛과 움직임에 의해서 4차 조형으로 변모(變貌)함으로써 공간 안에 존재하는 대상에 입체적인 조화의 미를 준다. 다섯째, 선, 형의 방향을 한곳으로 집중시키거나 반짝이는 대상으로 인해 자극이 가해질 때의 시각적 혼란은 시선을 집중시키며 다시 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하여 의도적인 강조미를 유도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시각적 환영은 새로운 조형요소를 창출(創出)하고, 이에 입각한 미적특징들을 통해 사고를 전환하여 또 다른 차원의 미적 개념을 확립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일루전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은 의상의 표현 영역을 확대시킬 뿐 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예술적,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가능성을 창출하여 패션을 조형예술로 승화시키며, 좀 더 진보된 방향으로 미래의 패션을 주도해 나가는데 있어 영감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